

初周大藏經

“1000년의 지혜를 1000년의 미래로”

고려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감히 만질 엄두도 못 내고 삼배(三拜)부터 하고 조심스레 펴 보았던 기억이 난다. 그간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대장경을 전산화하면서 겪었던 여러 어려운 상황이 스쳐 지나가며 '이것이 말로만 들던 초조대장경이구나' 하는 감정이 겹쳐 오리라 생각된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2년(1011)에 조성된 발원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송(宋)의 칙판대장경(勅板大藏經)에 이은 두 번째 대장경 조성 시도다. 칙판대장경은 현재 세계에 20여 폭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누구나 알고 있지만, 몽고의 침입으로 판목이 소실된 후에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히고 있었다.

초조대장경의 판본이나 실체를 드러낸 것은 1960년대의 일이다. 일본 남선사 일체경(南禪寺一切經) 중의 일부가 고려본 초조대장경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 후 국내의 전본(傳本)들이 하나 둘 발견되었다. 현재 조사된 바로는 고려본 초조대장경은 일본의 남선사에 1800여 권, 대마도에 600여 권이 남아있다. 국내에는 성암고서박물관과 호림박물관에 각각 100여 권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리움미술관, 삼성출판박물관 등 여러 곳에 100여 권 이상이 소장되어 있다. 현존하는 2800여 권은 초조대장경 전체를 6000여 권으로 봤을 때 반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경의 문화사적 의미나 역사적인 의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대장경의 조성은 국가적인 호국(護國)의 의미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복을 비는 의미도 있지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문화민족의 자존심 같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중국에서는 왕조마다 대장경의 편찬을 시도한다. 송(宋) 원(元) 명(明) 청(淸)은 물론 거란(契丹)이나 서하(西夏), 중화인민공화국의 중화대장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우리나라나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처님의 말씀은 말에서 말로 전해지다가 문자로 기록되었고 필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목판인쇄술은 활자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1000여 년 동안 정보를 복제할 수 있는 독특한 기술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아닌가 한다.

고려에서는 대장경이 세 번 만들어졌다. 첫 번째가 초조대장경이고, 두 번째가 의천 스님의 교장(敎藏), 세 번째가 해인사의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이다.

대장경을 경(經) 율(律) 논(論)의 삼장(三藏)이라고 한다. 그



‘초조대장경’ 日 남선사·대마도
국내 등에 2800여 권 남아
복원은 대장경 하나 더 생기는 것
다른 판본과의 관계 연구도 중요

부처님 가르침 정보로 활용되길

리고 편제상 정장(正藏)과 속장(續藏)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논소들 중 인도 찬술을 한역(漢譯)한 것은 정장에 편입하고 인도 이외의 나라에서 저술된 것을 속장으로 분류했다.

초조대장경이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의 분류 목록에 따른 정장이라면 고려 교장은 속장의 개념이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20여 년 동안 중국, 일본, 우리나라의 제가의 장소 1000여 부 5000여 권을 수집하여 분류 정리하고 신편제종교장총목(新編諸宗教藏總錄)을 편찬한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장소를 수집하여 분류·정리한 일도 처음이지만 이 일은 더 나아가 대장경의 외연(外延)을 넓힌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재조대장경의 보유편이나 그 후 대장경들의 속장으로, 정장과 속장으로 편제화된다.

초조대장경의 저본(底本)이 되는 촉판대장경은 송의 개보 4년(971)에 시작하여 태평흥국 8년(983)에 완성된다. 고려 성종 8년(989)에 승(僧) 여가(如可)를 송나라에 보내 대장경을 가져오게 하고 다시 성종 10년에 한언공(韓彦恭)에 의해 대장경이 수입된다.

초조대장경을 국전본(國前本)과 국후본(國後本)으로 나눈다면, 국전본은 현종조에 수입된 촉판대장경을 저본으로 하고 국후본은 문종 17년(1063)에 들어온 거란대장경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지난 2004년부터 초조대장경의 디지털화를 통한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초조대장경의 복원은 우리나라에 대장경이 하나 더 생기는 일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초조대장경 복원에 나선 것은 고려대장경이 '문화재'나 '보물'로서 보존되기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정보'로서 활용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대장경을 전산화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대장경들 간의 족보 관계다. 송판 대장경을 위시하여 거란판, 금판과의 관계, 초조에서 재조에 이르는 다른 대장경들과의 연결 관계였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기 스님의 교정별록(校正別錄)은 확실한 기록이고 좋은 지침서라 생각한다.

남선사 일체경의 성격은 독특하다. 초조대장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보판, 송판, 원판과 재조대장경 그리고 다양한 필사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축

판대장경은 송 태조의 칙명(勅命)으로 971~983년의 13년 동안 축(勳)의 성도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대장경이다. 동선사본은 1080~1112년에 복주의 동선등각원에서 만들어졌고, 개원사본은 1112~1151년 복주의 개원사 판본이다. 사계판은 1132년 왕영종(王永從)의 일찍이 발원하여 사계의 원각선원에서 만들었고, 적사판은 1231~1349년에 이르기까지 송 원

종림 스님은 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은 대장경 전산화를 위해 1994년 고려대장경연구소를 발족했다. 7년 간의 작업 끝에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디지털화 해 CD로 제작했으며 이 공로로 2000년 행원문화상 특별상을, 2004년 대원상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04년부터 '한일공동 초조대장경 디지털DB 구축 및 영인본 출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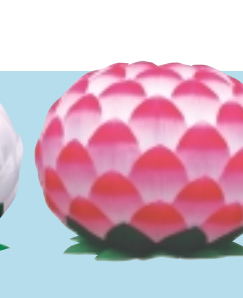
종등



팔각봉축집등



공 단 등



칼라(보카시)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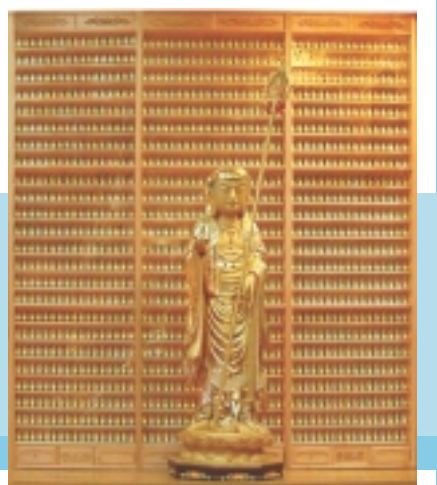
공 단 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청사초롱



광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